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 사실상 전원검사...무비자 입국도 차단



정부가 13일부터 해외 90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또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격리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8일 미국발 해외유입 확

미국발 입국자 관리 강화...단기체류 외국인 외 전원 진단검사

해외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해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줄이기

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자가격리 3일 이내 받는다. 기존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유증상시에만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 모두 받는 것이다.

단,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시설 격리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유증상일 때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미국 지역사회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누적 확진자 수는 912명이다. 이중 37.6%인 343명은 모두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다음으로 많은 숫자지만,

최근 입국 확진자는 미국이 앞서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2주간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 459명 중 미국발 확진자는 유럽발 입국자보다 많은 228명으로 4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유다.

특히 13일부터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막는 조치도 함께 강화된다. 해외 90개국에서 외국인이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 숫자가 90% 이하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한 5000여 명 정도의 입국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외국인이 20% 전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시설격리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숫자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 "좀 더 단기체류입국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로 무비자 입국 제한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석 기자

미국 사망자 2만 돌파 '세계 1위' 최악의 경우 24만 명 사망할 수도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사망자가 2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미국은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사망자 발생국이 됐다.

12일 오전 6시(한국시간 기준) 현재 세계적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일보다 1708명 증가한 2만455명을 기록했다.

미국에 이어 이탈리아가 1만 9468명으로 2위, 스페인이 1만 6480명으로 3위, 프랑스가 1만 3832명으로 4위다.

특히 미국의 사망자수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전일 신규 사망자 수가 2018명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고점은 7일 1971명이었다.

미국의 사망자 및 확진자는 특히 뉴욕주에 집중돼 있다. 이날 뉴욕의 확진자는 전일보다 8100명 증가해 모두 18만458명이 됐으며, 사망자도 전일보다 783명 증가해 모두 8627명이 됐다. 뉴욕의 사망자는 미국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최근 미국 사망자가 6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최악의 경우 미국 사

망자가 10만 명에서 2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최근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망자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친 것이 관측된다며 사망자 예상치를 하향했다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이 조금만 느슨해 질 경우, 사망자는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 뒤 5월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전염병이 완전히 잡히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코로나19가 재창궐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경우, 미국의 사망자가 6만명 선에서 그칠 것이지만 이것이 무너질 경우, 사망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세기 최고의 전염병이었던 스페인 독감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유행하며 약 20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아베는 日국민을 어떻게 속였을까?...올림픽 연기후 확진자 '폭증'

일본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도쿄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후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 중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 곳곳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코로나19 대응에 각종 의혹과 함께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11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6000명(6005명)을 넘어섰다.

이는 세계 25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시아에서는 중국(8만 1953명), 한국(1만480명), 인도(6412명) 등에 이어 4번째다. 일본 정부가 자국 공식 통계에 넣지 않고 있는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중 확진자 712명을 포함하면 인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긴급사태 발령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확진자 중 81%(486명)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올해 7월→내년)가 결정된 지난달 24일 이후 보고된 확진자들이다.

올림픽 연기 이후 확진자 증폭에 각종 의혹 ↑

비상사태 발령했지만 "너무 늦었다" 비판 곳곳

일본 지역 중에선 특히 긴급사태가 선포된 수도 도쿄 지역의 확산세가 거세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엔 전체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홋카이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공공토퉈게도 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된 지난달 24일 이후 도쿄도로 바뀌었다.

이에 일본 당국이 그동안 올림픽 개최 때문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고의적으로 소극적으로 실시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은 "내년 7월까지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개최 여부를)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여기에 긴급사태 선포도 늦었다는 지적이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서 일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도쿄(東京)도 △오사카(大阪)부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긴급사태 이후 일본 전

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500~6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흘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본 누적 확진자는 다음 주 안에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한 달 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70% 최대 80%까지 접촉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어 느덧 4월 이상 발령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2만7000여명에 이르는 등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우려는 깊어질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A씨(27)는 "확실히 올림픽 연기 결정이 이뤄진 뒤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많아졌고, 정부 정책도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분명 한국이 일본보다 코로나19 시작부터 지금까지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 도쿄도에 살고 있는 B씨(38·여)는 "긴급사태가 발표됐지만 모든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라며 "아베 정부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